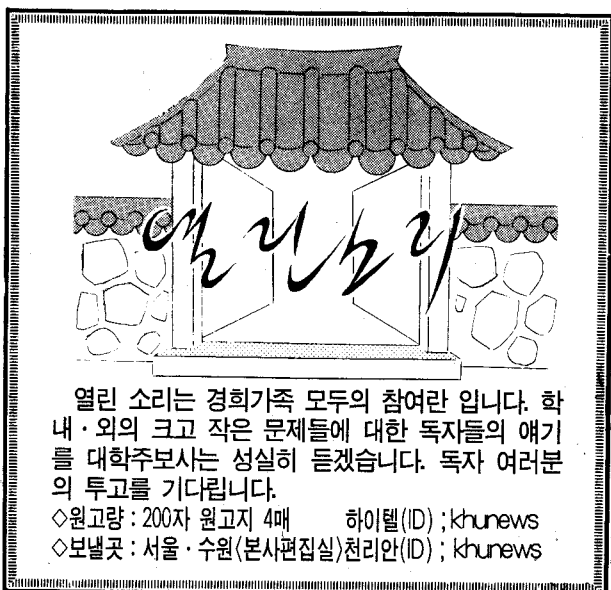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khnews)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천리안(ID: khnews)

민주적 노동법 지성인이 앞장서야

또다시 '보수대연합' 세력들의 작당으로 이미 날치기 통과된 바 있는 노동관계법이 이번엔 '합법적'으로 통과되었다 한다.

노동자들이 목숨걸고 총파업으로 일구어낸 공은 탐이 저들에 의해 다시 무너져 버린 것이다. 어떻게 노동법이 당사자인 노와 사가 아닌 소위 '직업정지인'들에 의해 마음대로 '협상'될 수 있는가? 주재의 전도

요 '길가는 애도 웃을' 일이다. 역사의 발전동력은 노동이다. 노동과정이 낳은 사용가치로 인해 자본이 형성된다. 그 자본과 관계 맺고 그나마 삶을 영위(營衛)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간 군상(群像)들이다.

이제 자본가들과 그들의 돈을 믿고 큰소리치는 자들이 이른바 '세계적 도박'을 벌이고 있다. 인간에게서 자기소외의 극복의 과정이 되어야 할 노동이 자본가들의 도박밀전을 대가 위한 노동으로 변질된 것이다. 기계와 기술에 밀려난 노동

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노동자들은 착취에 저항할 힘과 제도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비대한 자본은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이미 지구의 자원은 바닥을 드러냈고 자연과 환경은 파괴돼 버린 지 오래다.

광란의 질주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다. 바야흐로 자본주의는 포화되어 궁극에 다다랐다. 이런 더 늦기전에 이성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때인 것이다. 바라건대 '만국의 지성인들은 단결'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나아가 길가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민주적 노동법을 만드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멸망의 위기로 부터 탈출하게 될 인류사회의 바탕에 든든한 평화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전 우 철

(우주 4)

공대 낙서 사건 유감 올바른 사제관 갖기를

며칠전 공대 교수휴게실에서 한 학생이 주차문제로 심하

게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다. 개강부터 시작된 학생차량통제에 불만을 품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몰상식한 낙서라는 매체를 사용한 것이다.

한심스런 일이다. 사제간인 교수와 학생사이 벌어진 일은 더욱 그러하다. 이번 공대휴게실 낙서사건은 이유가 어떻든 배움을 받는 학생이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게 수원캠퍼스에서 주차난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연대앞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연대앞 주차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차를 두고 넓은 캠퍼스를 걷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번에 낙서를 쓴 학생 또한 이런 부류에 학생일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낭만을 캠퍼스 곳곳에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캠퍼스의 낭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교수에게까지 이런 아이처럼 보체는 우리네 경희인들이 한심스럽기만 할 뿐이다.

서 경 희

(회공 3)

학내 보수공사

학생 안전이 우선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이 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 학교도 다가오는 교육시장개방과 21C에 대비하고 하려는듯 캠퍼스 새단장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보수공사 진행되는 곳에선 항상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물론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훨씬 깔끔한 캠퍼스의 학교가 되겠지만,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편의를 다소 소홀히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하여 숨이 답답해지고, 공사가 잠깐 멈춰진 곳은 그냥 방치된 흙더미, 돌더미, 각종 장비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또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하다. 바로 옆 사람이 말을 해도 알아듣기 힘들 때가 가끔 있다.

안전사고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냥 방치된 공사 현장, 물론 조심히 지나가긴 하겠지만 자칫 실수하면 발을 뺄 수도 있다. 특히 학생회관을 올라가는 계단의 경우엔 돌부스러기들이 그냥 널려져 있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 새롭게 변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생활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향기가 많은 이들이 약간의 불편은 그냥 감수하며 지내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에선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학생들 입장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창 봉

(정경대 무역 3)

고 침

지난주 신문 1면의 복지장학금 기사에서 지면관계로 인해 자세히 실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동기들과도 어울리고 싶어요”

시간제 등록 입학 소동섭(법학)경위

잠깐 인터뷰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학기부터 시행된 시간제 등록학생 모집 결과가 발표되었다. 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모집에서 법학부에 합격한 소동섭(50세)씨를 만나보았다. 사진은 본인 요청에 의해 실지 않는다.

“당연히 전과목 A학점으로 졸업해야죠.”
예상하는 학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담하게 대답하는 소동섭(50세)씨는 이제 갓 입학한 대학 초년생이면서 경찰직에서 약 24년간 근무한 건설한 공무원이기도 하다.

사실 소씨가 대학에 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합격한 경찰시험이 동시에 날아온 대학 합격증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가장형 때문에 대학보다는 직장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그때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요. 사실 경찰직이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경찰의 길에 들어서고 싶었거든요.”

현재 경찰대학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소씨는 올해로 대학교 4학년인 딸과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를 둔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이다.

그렇듯 평범한 소씨가 나이 50에 배움의 길을 선택하는 쉽지 않은 법.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도 가정이 있어 배움의 길을 택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소씨는 우수학생들을 배출해내는 대학에서

학생들 뒷바라지를 하다보니 배움에 대한 욕망이 남들과 달랐다. 이번과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소씨의 그런 용기에 대해 가족들이나 직장동료들 모두 감탄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여태껏 해온 일과 그렇게 다른 분야가 아니라 생각보다 수월하게 공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동기들에게 느끼지는 세대차이를 극복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과공부 뿐 아니라 대학생활에도 욕심이 많은 소씨는 이제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친구들에게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바람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감동이 기자)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출연금의 많고 적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7. 3.10~3.14)

△김동찬(호텔전문대 학생처)

△허귀진(사회과학대 회계학과교수)

△정한옥(총무과)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59기 일동

△경희사랑 저금통 기탁

△전영중(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교수)

△고은영(대학원 생물학과 석사과정)

50만원
2백만원
3만1천9백10만원
3만2천5백원

자율과 부드러운 질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면 미련과 회한만이 남는다. 모두들 앞에서 벌거숭이가 된 듯한 부끄러움도 있었다. 이 땅에서 우직스럽도록 성실한 삶을 하려다 무너져가는 보루사람들, 이들을 하루아침에 살맛을 잃게 한 일들이 오늘을 일목지해 한 서글픈 사연이었다.

어느때 어느 세상에서도 정칙과 정도가 옳고 바른 것임은 변함없었다. 그 정칙과 정도가 반칙으로 달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분노하며 살 맛을 잃고 말았다.

처음부터 마지막 끝맺음까지 시종 정의와 정칙의 흐름이 있어 왔. 그 정칙과 정도로 살 맛을 찾은 곳. 3월이면 학원은 생기가 돌고 활기를 찾는다. 주인들로 가득차고 자율의 바람이라는 그 준비로 이해와 아량이 힘을 돌린다. 신선함과 상쾌함으로 한결 믿음직스럽고 활기가 넘쳐 보인다. 오랜 체중이 풀린 듯 표정이 밝다. 특히, 경희학원은 앞으로 그려질 새 그림의 모습들이 어떻게 관습이 지레 앞선다.

자율의 뜻은 무엇인가. 뻔한 의미를 쫓지라도 대로 다시 물어보게 된다. 사건을 펴 보았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행동을 억제함”이다. 어찌지 미흡

하고 좀 싱거운 느낌이다. 그러나 철학의 풀이는 단순하지 않고 적극적이다. 접근하기조차 너무 어려운 칸트의 실존성이 자율속에 나온다.

인간의 의지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이에 따르므로써 자율을 얻고 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 이외의 외적권위나 욕망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칸트 윤리사상의 근본을 이룬다.

참된 자율은 꾸준히 내실을 기하며 자기발전권을 꾀한다. 저절로 의욕이 솟구친다. 창조력의 뿌리다.

타율은 언제나 딱딱하지만 자율은 그렇지 않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고 질다.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탄력이 있다. 끊임없이 강조되는 질서도 ‘자각’을 키워야 확립되고 정착된다. 일시적인 단속보다 참을성 있는 제도가 그래서 바람직하다. 남이 한다고 이따가 가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나설 때, 질서는 정상제도에 올라선다. 사물의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이 곧 정치라고 공자는 가르쳤다. 부연하여 “예절과 음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정치에 적용하면 덕이 있다”고 말했다. 음악으로 생활상을 살피는 것대로 삼은 것이 흥미롭다. 자

율의 율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자율음이라고 억지이름을 달아본다. 그리고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기를 바란다. 나 울러 우리는 귀 기울여 그 노래를 들어야 한다.

어떤 제약을 가하면 자율은 낮아지고 굽고 만다. 끈기를 갖고 귀담아 들어야 내일의 방향제시와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제 너무나 익숙한 새로운 설 레임으로 시작되는 3월의 학원. 많은 슬로건이며, 포어머, 캐치프레이즈며, 격문들은 옹기 정강대일에 참여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이며 표상이다. 다만 이런 구호가 구두만으로는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학원에서조차 반칙과 타율로서 살 맛을 잃게 된다면 그 현실이나 폐해가 그대로 사회로 역류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율과 정칙을 통하여 경희학원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지켜지기를 진정 바란다. 봄이 되면 늘 듣던 새들의 울음까지 새롭다. 겨울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온 햇살이 경희학원에 만큰은 학습과 연구와 강의로, 경영에도 그리고 낭만까지도 한층 밝았으면 좋겠다.

김 동 선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朔風

97학번 신입생들이 입학한 지 2주 정도가 흘렀다. 신입생들은 새로운 각오로 대학생활을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입학과 동시에 인생에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는 기쁨의 시간은 2주일이 충분하다.

그리고 신입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들의 잔치는 끝났다. 이제 당신들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총체적 불경기와 경제불안의 여파로 대졸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러한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취업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항상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일이 많았다. 대학에 들어와서 4년 내내 무언가를 한 것처럼 생

각되지만 막상 졸업할 때가 되어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제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학원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취업을 떠나서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기업체에서 생각하는 산학협동 역시도 그 기본은 자신의 기업에 충실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적인 사관학교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현실에서 자신의 이상을 펴는 방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취업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취업을 위해 우리 후배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구이

다.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가지 어학실력을 추천하고 싶다. 2가지 어학실력이란 국제적 마케팅의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외국어 1가지(가능하면 영어가 좋다)와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관련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구사 능력이다.

이러한 도구는 예를 들면 사다리 같은 것으로 만약 자신이 우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물밖 더 넓은 세상을 무언가 덮고 일어설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긴 사다리를 얻을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길이가 모자라거나 올라가다 부러질지도 모르는 부실한 사다리를 만들고 말 것이다.

사다리는 능력이다. 꿈이 아무리 크고 싶은 일이 많을지라도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능성의 세계를 최상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인생이라면, 능력은 인생을 잘 꾸러가는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대학생활은 결국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가 수 있는가 아니면 낙오하는가의 갈림길에 될 수도 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운명의 사슬이 당신의 몸을 칭칭 감은 채 전혀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천리 만리를 끌고 간다고 해도 당신은 무기력하게 그 운명이라는 이름에 복종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항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시간은 절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신입생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點雨)

DA·COM

천리안을 따라올 자 누구인가!

무료 채팅 서비스에 이은 온라인 동영상 기능까지 - 더욱 새로워진 천리안 97과 만나십시오!



살아있는 온라인 동영상 · 음성 서비스 - 우리는 진짜 멀티미디어 천리안 97로 간다!

진짜는 언제나 하나 뿐! 채팅은 무한정 공짜에 세계 최초의 정밀감각하는 온라인 동영상 기능까지 추가된 천리안 97은 진짜 멀티미디어로 대표되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진짜 멀티미디어 서비스, 천리안 97!

새로운 천리안 97의 놀라운 기능

· 세계 최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천리안에선 실제 방송인 KBS를 영입해 목소리로 검색한다. · 생생한 음성 서비스 - REAL AUDIO 기술로 음성 E-mail, 음성화상 등 실감나는 통신을 즐긴다. ·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 - TTS, 책판과 기능, 쪽지대화방 기능, 파일 직접 업로드 기능, 팩스 전송 기능 등 새롭게 제공되는 편리한 기능이 가득하다.

천리안 97 사은대축제

축제1: 천리안 새나기를 위한 사은대축제

한국의 대표통신 천리안의 전용 S/W 천리안 97 판권을 기념하여 고객 여러분을 위한 꾸민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 대상: 3월 5일 가입하는 신규 고객 전원
● 선물내용: 천리안 97(100명):서울이동통신 시리온 단말기 · 데이터셋(10명):전자수첩 · 천리안 97(100명):비서 서비스 호출기 · 행운상자(500명):천리안 마우스 패드
● 가입자 전원 천리안 멤버십 CD-ROM(넷스케이프 정사본 3.0 포함)
* 선물은 추첨을 통하여 드립니다.

축제2: 천리안 97 사용소감 및 아이디어 공모 행사

● 기간: 3월 5일 ~ 4월 15일
● 시상내용: 최우수상(1명) 상금 100만원 · 우수상(1명) 상금 50만원
· 가작(1명) 상금 30만원 · 입선(100명) 참가 기념품
* 자세한 내용은 천리안 공지사항 및 행사 코너(On CHOL9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천리안 멤버십 및 인터넷 서비스 S/W 버전, 익스플로러 버전 3.0, 천리안 캐스트, 책판과 기능, 팩스 전송 소프트웨어.

개강 축하 2대 이벤트

이벤트

SCUG 무료개설 - 10명만 모친들 동아리 방 하나가 공짜!

동아리, 학과, 동문모임 등 천리안 ID를 가진 대학생 10명만 모이면 가입비(5만원) 없이 독립된 모임방(SCUG)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97. 3. 4 - 3. 31
· 개설방법: SCUG 신청서 (go SCUG 참조)를 작성 및 전화 신청 (082-021220 - 7063, 7067)

이벤트 2

천리안 캠퍼스 설명회 -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각 대학내 천리안을 소개하고 가입 신청을 받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신청기간: '97. 3. 17 - 3. 31(각 대학 동아리 모집기간에 운영) 기념품: 천리안 마우스 패드 증정

천리안내 대학 동아회 및 가입 지정장 안내

● 천리안내 대학 동아회 (go 동아회 +)
창주대 CUU / 영남대 CM / 순천대 CNU / 순천향대 SUCA / 서원대 WCU / 연세대 YONSEI / 한양대 HANYANG / 한림대 HALLIM / 인하대 INHA / 국민대 KNU / 울산대 ULSAN / 세명대 SEM / 건국대 OKKUGU / 부산외국어대 PUUFU / 부산여대 PWYTH / 광주대 KJU

● 각 대학 가입 지정장
서울대 (연락) 8866-002 / 경희대 (연락) 953-0065 / 이대 (연락) 444-8888 / 한대 (연락) 784-4248-9 / 숭실대 (연락) 479-0220 / 서울시립대 (연락) 3471-6900 / 경기대 (연락) 952-8400 / 성대 (연락) 273-9002 / 부산대 (부산총대) (051)502-9912-4 / 과학기술대 (부산) 080-99-01420 / 동덕여대 (부산총대) (051)502-9912-4 / 동덕여대 (부산사학) (051)208-8706 / 중앙대 (대전중앙) (042)221-9733 / 서울산업대 (노원) 952-8400 / 서울대 (강동) 479-0220 / 전남대 (광주북부) (062)521-2581 / 조선대 (광주북부) (062)521-2581 / 관동대 (강릉) (0391)645-5001-5 / 강원대 (춘천) (0361)262-4364 / 삼지대 (원주) (0371)732-3200



천리안

고객서비스 센터: (082-021220-0220, 080-023-0220)
고객지원센터 문의: 082-022-0220-0211, 가짜: 080-99-01420